
 <div>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div>		<div>보도자료</div>		 <div>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div>
		배포 일시	2022. 3. 9(수)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어업지도과	담 당 자	• 과장 김형덕, 주무관 정윤희 • ☎ 051) 410-1005, 1030 (무궁화1호 선장 김성주)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어업관리단 한일EEZ 경계선 부근 조난어선 구조

- 한·일 중간수역 내 표류 중인 항해 불가 어선 긴급 예인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3월 9일 10시 50분경 울릉도 남동방 11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난된 우리 어선이 있어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안전하게 구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선 K호(근해자망, 29톤, 승선원 10명)는 3월 7일 오전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한·일중간수역 내 조업 중 방향키 고장으로 자력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긴급 구조요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난된 어선은 동해중간수역 일본EEZ 부근에서 조업 중으로 조류에 의해 일본 측 수역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를 현장으로 신속히 보내 예인하여 우리 어선과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단은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정 윤 혁 계장(☎ 051-410-10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